



창릉천

창릉천 국가통합하천사업 선정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창릉천을 세계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공유되었다. 고양시는 지난 12월, 창릉천이 환경부 국정과제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국가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삼송, 원흥, 지축지구와 함께 앞으로 창릉3기 신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도심 속 방치된 하천을 새롭게 재탄생할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공모로 선정된 사업비는 총 3,200억 원 규모다. 이 중 약 1,000억은 LH 창릉3기 신도시 친수공원 조성 및 하수도 분류식사업 등 연계사업으로 진행된다. 환경부 기본구상이 확정되면 총사업비의 85%가 국·도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향후 환경부 사업계획 승인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역맞춤형 국가통합하천사업을 통해 창릉천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공원과 휴게 공간으로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지키는 물론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역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본격 추진... 자문단 출범

고양시는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총 24명으로 구성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자문단은 수자원, 조경, 환경, 건축, 인문·철학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시·도의원, 환경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포함됐다. 자문단 위원장은 이재오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게 됐다. 앞으로 자문단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적기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자문단 운영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확충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자유로 이산포 IC까지

광역교통망 확충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에 발맞춰 부족한 교통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고양시 민선8기는 공약 70개 중 교통 관련 공약이 17개(38%)나 될 정도로 광역교통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획기적인 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민자적격심사'가 최근 통과됨에 따라 고양시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를 빚는 자유로-강변북로-양재 IC구간을 지하로 연결해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통행이 전망되는 도로다. 현재까지 검토된

노선은 양재~고양시 현천JC인데, 고양시는 자유로 이산포 IC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고양시 철도망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당선과 9호선, 인천2호선, 고양-은평선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하고, 3호선 및 경의중앙선 급행 공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당 발전 및 시 청사

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 원당지역 발전에 사용

원당지역 발전 청사전과 시 분청 이전에 관한 문제도 주민들의 큰 관심사였다. 고양시는 이와 관련하여 시 분청 이전 및 원당 청사기능 유지, 원당 재창조프로젝트 등을 설명했다. 시는 주교통 및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고, 고양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로 만듦으로써 그 결과물을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적립된 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을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 자리에서는



시 분청을 이전할 경우 원당지역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강간의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고양시는 분청만 백석으로 이전하고, 원당 현 청사에는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므로써 청사 기능을 유지하며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시 분청의 백석동 이전 계획에 관한 설명도 덧붙였다. 시는 청사 건물을 새로이 지을 경우 당초 추산 공사금액은 2,950억 원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을 감안하면 4,000억 원 이상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32.8%(2022년 기준)에 불과한 시의 재정은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현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새로운 청사를 짓기보다는 기부채납된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재원이 거의 들지 않는 청사를 마련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원당지역 발전에 투입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